

3분 고전

제 1장 역발상의 미학

1. 上善若水 ----- 道德經

물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일 수 있습니다.

2. 五味口爽 ----- 道德經

맛있는 음식은 입을 상하게 한다.

맛있는 것만 찾는 욕망이 입맛의 순수함을 잃게 만듭니다.

3. 拔苗助長 ----- 孟子

도와주는 것이 해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4. 反者道之動 ----- 道德經

거꾸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5. 谷神不死 ----- 道德經

계곡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부드럽고 연약하고 겸손한 것이 강하고 세고 교만한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곡신불사! 계곡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 진정한 승자는 세월이 지나가봐야 드러나는 법이다.

낮춤과 포용이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 難得糊塗 ----- 鄭板橋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기 힘들다.

(糊塗 :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

나 흐지부지 덮어 버림의 비유.

-----• 진상을 ~하다.

糊 풀 호; 풀, 붙이는 풀, 끈끈하다, 입에 풀칠하다, 살아가다

塗 진흙 도; 진흙, 칠하다, 길)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에는 자신의 모습과 의도를 드러내고 사는 방법도 있고, 초야에 묻혀 자신의 능력과 광채를 감추며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난세에는 잠시 자신의 광채를 내려놓는 것도 아름다운 삶의 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똑함이 시대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증오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채는 겉으로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7. 多言數窮 ----- 道德經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소중합니다.

7-1 . 一言既出, 駟馬難追

한 번 내뱉은 말은 네 필의 말이 이끄는 수레로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말에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8. 風憐心 ----- 莊子

바람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나입니다.

9. 深藏若虛 ----- 史記

똑똑한 상인은 좋은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때로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세상을 피하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추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10. 若烹小鮮 ----- 道德經

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

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라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직원들의 업무를 시시콜콜 간섭하거나 그들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11. 爲道日損 ----- 道德經

날마다 비우는 것이 도를 닦는 방법이다.

12. 利用 ----- 道德經

잘쓰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이 돈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13. 天長地久 ----- 道德經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다.

-‘한발짝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오히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남보다 낮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지도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철학입니다. 억지로 간섭하지 않기에 오히려 장구할 수 있고, 군림하려 하지 않기에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섬김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군림하고 강압하고 강제하는 것보다 모시고 받드는 섬김의 리더십이 결국 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노자의 ‘천장지구’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14. 天地不仁 ----- 道德經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말라!

聖人不仁，以百姓爲芻狗

성인은 어질지 않다. 백성들을 풀강지 정도로 생각한다.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15. 太上有之 ----- 道德經

칭찬받는 사람이 위험하다!

위대함은 가장 평범한 것이다.

太上知有之

16. 必作於細 ----- 道德經

큰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조그만 것을 놓치지 않아야 큰일이 안 생깁니다.

天下大事必作於細

17. 大國者下流 ----- 道德經

하류가 정답이다.

상류가 하류처럼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18. 亢龍有悔 ----- 周易

끝까지 올라간 용이 후회한다.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19. 混沌 ----- 莊子

혼돈이 질서보다 아름다운 이유

세상은 어쩌면 질서보다는 무질서 속에서 더욱 예쁜 꽃을 피고, 순종보다는 잡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확실함보다는 혼돈 속에서 해답은 더욱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혼돈의 역설, 질서와 질서기만을 강요하는 작금의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혼돈의 인생이 질서정연한 인생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20. 和光同塵 ----- 道德經

광채를 줄이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라!

-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뚝 서서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빛을 누그러뜨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민중과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빛을 줄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21. 木鷄之德 ----- 莊子

최고의 싸움 닭은 목계

- 목계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제일이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남의 소리와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과 조금, 그리고 공격적인 눈초리를 완전히 평정한 사람의 모습이 목계의 덕을 가진 모습일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잠시 빼면 진정 최고가 됩니다.

제 2장 마음경영

22. 千萬買隣 ----- 南史

좋은 이웃이 프리미엄

百 萬 買 宅, 千 萬 買 隣

居必擇隣 : 주거지를 택할 때는 반드시 이웃을 선택해서 정해야 한다.
함께하는 이웃이 좋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23. 牛山之木 ----- 孟子

우산은 원래 민둥산이 아니었다.

牛 山 之 木 嘗 美 矣

우산의 나무는 일찍이 아름다웠다.

- 우리는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고 어떤 포악한 행동을 보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과 신뢰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입니다.

세상에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24. 不遷怒 ----- 論語

분노를 옮기지 마라

不 遷 怒 不 二 過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마라!

한 번 한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마라!

화를 참기는 쉬워도 남에게 옮기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25. 至誠無息 ----- 中庸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至 誠 感 天, 至 誠 無 息

하늘은 쉬지 않는 無息함에 감동합니다.

26. 脣亡齒寒 ----- 春秋左傳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 어려울수록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상생을 추구하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

- 酒食兄弟보다 急難之朋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기에 내 인생이 따듯합니다.

27. 不忍之心 ----- 孟子

남의 불행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

당신의 불행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28. 暴怒爲戒 ----- 明心寶鑑

버럭쟁이가 되면 천하를 잃는다

- 병중에 가장 큰 병이 火病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버럭 화내는 ‘暴怒’는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감정입니다.

29. 恒産恒心 ----- 孟子

먹을 것이 있어야 윤리 도덕이 나온다

항산 없이 항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군자입니다.

30. 英雄善泣 ----- 박지원 <熱河日記>

영웅은 울 때를 안다.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모든 감정의 으뜸은 울음입니다.

英 雄 善 泣 美 人 多 淚

31. 浩然之氣 ----- 孟子

옳음을 추구하면 호연지기가 생겨난다

-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요구됩니다. 현실에서 이익만 추구하며 산다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 의로운 삶의 연습과 실천을 통한 호연지기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호연지기 가득한 사람은 정신적 충만감이 가득합니다.

浩 然 之 氣 配 義

32. 心齋 ----- 莊子

마음을 재계하여 평형을 유지하라!

- 나의 의도와 목적을 버리고 나를 비워서 상대방과 기로 접속하여 소통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결국 진정한 의미의 일체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心 齋 虛 而 待 物

심재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不入則止)

33. 終身之憂 ----- 孟子

유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 군자는 終身之憂를 가지고 살지언정 一朝之患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된다.
평생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우환의식이 군자의 덕목이며, 내 안위와 출세만 생각하는 일조지환은 소인의 근심이다.

우리는 무엇을 종신토록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34. 無信不立 ----- 論語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 없다.

우리들의 믿음지수는 얼마입니까?

35. 酒泉 ----- 漢書

실크로드로 가는 술 익는 마을

- 마음을 위로해 줄 리더의 따뜻함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 시대에 ‘酒泉’이란 고을 이름 하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난세를 겪어왔는지를 잘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地名말입니다.

난세에 술보다 맛있는 것은 따뜻한 나눔입니다.

36. 朝聞道夕死可矣 ----- 論語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 기업이 돈을 벌었다면 고객과 사회와 나누고, 사람이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면 그것을 주변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침에 꿈을 이루었다면 낮에는 나누어라! 그러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구절입니다.

성공보다 아름다운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37. 天時不如人和 ----- 孟子

뭉치면 산다

天 時 不 如 地 利, 地 利 不 如 人 和

-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물질적 요소만이 아니라 일체화된 꿈과 의지에 달렸다는 맹자의 말은 백 번 옳습니다.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38. 己所不欲勿施於人 ----- 論語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먼저 베푸세요!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이 감동할 것입니다.

39. 人生三樂 ----- 孟子

맹자의 행복한 인생론

-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곧,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가 탈 없이 지내는 것,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을 이룸. 인생삼락.

君 子 有 三 樂

- 가정의 평안, 인생의 당당함,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행복일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맹자의 소박한 인생 행복론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40. 爲政以德 ----- 論語

법보다 위대한 것이 덕이다

- 제도나 강압은 결코 지속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며 따뜻함으로 감싸줄 때 그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일 것이란 믿음이 덕의 리더십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줄 이웃이 있습니다.

41. 不動心 ----- 孟子

불혹의 나이 40대

- 不惑과 不動心은 어디가고 유혹과 동심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이리저리 줄을 서며 언제든지 불러줄 사람을 향하여 해바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공자의 불혹과 맹자의 부동심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不動心の 나이가
不動産의 나이로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42. 一般清意味 ----- 邵康節

어느 시인의 작은 행복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
달은 하늘 깊은 곳에 이르러 새벽을 달리는데,
어디선가 바람은 불어와 물 위를 스쳐가네,
너무나 사소하지만 일반적이고 맑고 의미 있는 것들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적네.

작지만 아름다운, 나만이 느끼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43. 漁父辭 ----- 屈原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라!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이해 안 가는 일이 생기면 이해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 3장 변화와 혁신

44. 戰勝不復 ----- 孫子兵法

영원한 승리는 없다

-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뉘 놓고 있다가는 언제든 성공이 실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승리는 유연함과 겸손으로 내 모습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이미 패

배는 등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45. 井底之蛙 ----- 莊子

황하의 신 河伯의 깨달음

- 曲士不可以語道 :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 장자는 3가지 집착과 한계를 파괴하라고 충고합니다. 첫째,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파괴하라! 둘째,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을 파괴하라! 셋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파괴하라. 우물안의 개구리는 공간에 구속되어 있고, 여름 벌레는 시간에 걸려 있고, 지식인은 지식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井 蛙 不 可 以 語 海

우물 속에서 나와 저 넓은 하늘과 바다를 만나야 합니다.

46. 不龜手之藥 ----- 莊子

손 안 트는 약을 팔아 장군이 된 사나이

- 기존의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생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7. 泰山不辭土壤 ----- 史記

태산은 한 줌의 흙을 사양하지 않는다

- 태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산과 같이 큰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황하와 바다는 조그만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왕도 백성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군왕의 덕을 천하에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결국 경쟁력이며 승부처인 것입니다. 닫고 사는 자가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는 자만이 결국 생존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여야 더욱 크게 됩니다.

48. 善游者溺 ----- 韓非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다

-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하다고 하는 일에 자만하고 방심하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소한 것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善 遊 者 溺, 善 騎 者 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나무를 너무 잘 타기 때문입니다.

49. 涸澤之蛇 ----- 韓非子

작은 뱀을 태우고 행군하라!

涸 澤 之 蛇

말라버린 연못의 뱀이 생존하려면 큰 뱀이 작은 뱀을 삼겨야 한다.

- 자신보다 못한 부하를 남이 보는 가운데 더욱 우대하고 대접해 준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위대한 리더의 필수 조건입니다.

50. 守株待兔 ----- 韓非子

새로운 토끼를 잡으려면 새로운 먹이를 준비하라!

- 수구적이고 변화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조류에 대하여 한비자는 개혁가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변혁과 혁신이야말로 대세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나간 시절에 연연하여 평온에 안주하려 한다면 조직과 개인의 생존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51. 大器晚成 ----- 道德經

큰 그릇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

- 『도덕경』에서는 ‘대기만성’과 함께 위대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大音希聲), 가장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大象無形) .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지식으로 무한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 완성된 모습, 정해진 소리, 보여지는 형체에 머물지 말라! 큰 그릇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

‘위대함(great)’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나음(better)’입니다.

52. 事小主義 ----- 孟子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은 어진 자의 행동이다

-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나아가 마음속의 복종을 이루어내는 것은 고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굽힐 수 있는 事小, 자신의 감정을 제어 못하는匹夫의 만용을 버리고 진정한 대장부의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철학입니다.

강한 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옳습니다.

53. 地天泰 ----- 周易

상하가 서로 낮추면 태평성대가 된다

나는 얼마나 나를 낮추며 주변을 섬기고 있습니까?

54. 合縱連橫 ----- 史記

종횡무진, 생존만이 관건이다

- 생존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세상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험난한 세상에 공동으로 대응하십시오!

55. 暮氣歸 ----- 孫子兵法

저녁에는 집에 가고 싶다

-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운은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떤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56. 君子三變 ----- 論語

세 번 변하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

望之儼然, 卽之也溫, 聽其言也厲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한 사람,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사람.

나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57. 虎視眈眈 ----- 周易

호랑이의 눈으로 먹잇감을 바라보라!

虎視眈眈, 其欲逐逐

호랑이의 눈으로 목표를 보라! 목표를 향한 꿈을 잃지 말고 달려가라!

호랑이의 눈으로 목표를 응시하고 소걸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虎視牛步)

58. 君子不器 ----- 論語

군자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군자는 한 가지만 정통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 식견을 갖춘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군자는 한 가지만 수용하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것을 수용하고 統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오늘날 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그릇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용기가 아쉽습니다.

59. 枉己未有能直人 ----- 孟子

사냥에도 원칙이 있다

원칙을 버리고 굽히면 결국 영원히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60. 五十步百步 ----- 孟子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간 것은 같다

나는 지금 몇 보 뒤에 도망가서 서 있을까요?

61. 東施效顰 ----- 莊子

서시 따라 하다 추녀가 된 동시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62. 狡兔三窟 ----- 史記

똑똑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

- 세상일에 실패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더라도 가정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줄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평소에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위기 앞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위기에 대비하여 몇 개의 굴을 파놓고 있습니까?

63. 越官之禍 ----- 韓非子

모자 담당 관리의 월권

越 官 之 害 甚 於 寒

남의 업무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

64. 革舊習 ----- 擊蒙要訣

못된 옛날 습관을 혁파하라!

革 舊 習 一 刀 決 斷 根 株

나의 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은 지금입니다.

제 4장 逆境이 경쟁력이다

65. 窮則通 ----- 周易

궁하면 통하리라!

- 세상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답이 없다고 拋棄하는 것이죠.

窮 則 變, 變 則 通, 通 則 久

-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노력한다면 그 궁함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궁즉통의 철학만 있으면 난세를 현명하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나무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66. 苦肉計 ----- 三十六計

아프더라도 살을 도려내라!

- 조직이든 개인이든 어느 순간 과감하게 고통을 감내하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무한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고육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라! 고육계,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선택입니다.

아픔은 잠시지만 기쁨은 영원합니다.

67. 借屍還魂 ----- 三十六計

남의 시신을 빌려 다시 살아나라!

- 새로운 현실을 거부하고 지나간 시절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모습이란 없습니다. 다가온 모습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내 모습을 바꿀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육체를 가졌는나가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깃든 육체가 가장 아름다운 육체입니다.

68. 見危授命 ----- 論語

위기를 보면 목숨을 걸고 행동하라!

- 오직 義에 의하여 이합집산하는 현대사회에서 義를 버리지 않고 위기에 대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義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산다면 정신적 굴주림, 정신적 뇌사상태, 정신적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위기가 없는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의를 중심으로 극복하는 긍정의 정신에 있습니다.

위기와 역경 앞에 긍정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69. 天地否 ----- 周易

군자는 물러나고 소인만 득실하다!

天 地 否, 天 地 不 交 而 萬 物, 不 通 也

- 오로지 낮은 곳으로 임하는 리더의 자세에서 리더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자발적 소통이 나옵니다.

不通은 결국에는 疏通으로 변합니다.

70. 無中生有 ----- 三十六計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혹독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무중생유'의 전술입니다.

天 下 萬 物 生 於 有, 有 生 於 無

-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될 때가 어쩌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아무 대안이 없을 때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편안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려면 肯定의 힘이 필요합니다.

71. 切磋琢磨 ----- 詩經

좋은 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 세상의 모든 존재는 本末이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始終이 있다.

인생을 절차탁마하고 있습니까?

72. 自強不息 ----- 周易

하늘의 운행은 쉬지 않는다.

天 行 健, 君 子 以 自 強 不 息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73. 金鎋脫殼 ----- 三十六計

금빛 매미는 허물을 벗어야 만들어진단다.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난 나를 상상해 봅니다.

74. 吾日三省 ----- 論語

하루에 세 가지 자신을 반성한다

나의 세 가지 반성 항목은 무엇입니까?

75. 李代桃僵 ----- 三十六計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하여 희생하다

돌아보면 내 손을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76. 無之以爲用 ----- 道德經

- 소유를 포기하고 사용할 때 진정 돈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잘 쓰는 사람이 잘 벌 수 있습니다.

77. 獨立不懼 ----- 周易

홀로 우뚝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 위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에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그 위기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獨立不懼, 利有攸往

나의 역경지수는 얼마입니까?

78. 責人之心 ----- 明心寶鑑

남의 잘못을 꾸짖는 마음

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남에게 너그럽고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 군자입니다.

(春風對人, 秋霜持己)

79. 訥言敏行 ----- 論語

말은 어눌하고 행동은 민첩하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80. 人生三不幸 ----- 程頤

인생의 세 가지 불행

少年登科, 席父兄弟之勢
有高才能文章, 人生三不幸

- 요즘 인생은 삼모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일모작을 잘 살았다고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찍 이루면 후반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합니다.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81. 混水摸魚 ----- 三十六計

물을 흐리게 만들어 고기를 잡는다

- 혼탁한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게 마련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방향감각을 정확히 잡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런 혼란과 위기에 허둥대면 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안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갑자기 혼란스럽고 안개 속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향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인생은 살 만합니다.

82. 上屋抽梯 ----- 三十六計

지붕으로 유인하여 사다리를 치워라!

-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더욱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끝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조직이 평화롭고 매너리즘에 빠져 긴장감을 잃고 있을 때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우는 상옥추제의 전술은 예상치 못한 좋은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83. 樹上開花 ----- 三十六計

나무 위에 화려한 꽃을 피게 하라!

어설픈 치장은 오히려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84. 反客爲主 ----- 三十六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생존은 끊임없는 긴장감과 변화의 유연함을 습득한 사람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인도 손님도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85. 走爲上 ----- 三十六計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 인생이란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안되면 역량을 축적하기 위하여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은 때로는 도망가는 것도 상책일 수 있다는 ‘走爲上’의 병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86. 庖丁解牛 ----- 莊子

최고의 백정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道士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7. 一沐三捉 ----- 史記

인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一 沐 三 捉, 一 飯 三 吐

한 번 머리 감을 시간이라도 세 번 나가 인재를 만나라!

한 번 밥 먹을 시간이라도 세 번 음식을 뱉고 인재를 만나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제 5 장 전략으로 승부한다

88. 出其不意 ----- 孫子兵法

상대방이 의도하지 못한 시간에 나가라!

- 역대 수많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조직은 군량미나 무기, 병사들이 많았던 군대가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곳을 찾아낼 줄 아는 안목과 전략이 있었기에 위대한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出 其 不 意, 攻 其 無 備, 兵 者 貴 速

절박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긍정입니다.

89. 先勝求戰 ----- 孫子兵法

전쟁은 승리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 전쟁은 싸워서 이기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승리를 확보한 후에 승리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 승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둠 속에서 내실을 키워 결정적인 공격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전쟁은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 번 모두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勝 兵 先 勝 而 後 求 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입니다.

90. 必死可殺 ----- 孫子兵法

죽기만을 각오하면 죽는다

-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전쟁을 한다면 그 결말은 자명할 것입니다.
- 이길 수 없는 상대라면 수비에 들어가라! 이길 수 있는 상대일 때 공격하라!. 공격과 수비, 진격과 후퇴는 전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쟁이란 공격할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는 아주 유기적인 게임입니다.
-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소진시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동향을 세밀히 살피며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不 可 勝 者, 守 也, 可 勝 者, 攻 也

수비와 기다림이 공격보다 위대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91. 借刀殺人 ----- 三十六計

남의 칼을 빌려 상대방을 쳐라!

- 유능한 사람은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직접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보면 갈등과 반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以夷制夷 :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한다는 말.
- 含血噴人先汚其
칼은 휘두를 때는 멋있지만 피를 닦을 때는 힘든 것입니다.

92. 朝三暮四 ----- 莊子

중국 송(宋)나라 때, 원숭이들에게 상수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준다고 하자 좋아하였다는 우화(寓話)에서 나온 말:열자(列子)에 나오는 말)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 인생을 마지막으로 결산해보면 결국 '얻은 것과 잃은 것의 합은 같다'고 합니다. 남보다 먼저 부귀를 얻은 사람은 말년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려서 남보다 고생한 사람은 결국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남보다 빨리 간다고 결코 최후의 승자는 아닙니다.

93. 厚顏黑心 ----- 李宗吾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으로 성공하라!

- 중국역사를 보면 영웅호걸이나 최후의 승리를 얻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명분과 자존심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가지며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에 몰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면과 자존심을 강조하는 유교적 명분주의도 알아야 하지만 좀처럼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실리와 현실을 중요시하는 후안과 흑심의 망니드도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두꺼운 얼굴로
자기 중심을 찾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94. 道天地將法 ----- 孫子兵法

이길 계산 5가지 법칙

道 天 地 將 法

꿈, 환경, 처지, 지도자, 시스템

같은 꿈을 꾸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95. 敵人自至利之 ----- 孫子兵法

주도권을 쥐려면 이익을 주어라!

敵 人 自 至 利 之

적을 스스로 오게 하려면 이익을 던져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96. 進不求名 ----- 孫子兵法

공격을 결정함에 명예를 구하지 마라!

進 不 求 名, 退 不 避 罪

진정한 國寶는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입니다.

97. 非危不戰 ----- 孫子兵法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마라!

-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노여움은 시간이 지나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가 없다. 한 번 죽은 병사들은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非 利 不 動, 非 危 不 戰, 非 得 不 用

-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고 철저한 이익과 득실을 따져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전략은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최대한 정제시켜 주는 도구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98. 趁火打劫 ----- 三十六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 어렵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불난 집에 가서 자신의 냄비를 때우고, 남의 불행을 틈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9. 欲擒姑縱 ----- 三十六計

잡으려면 먼저 놓아줘라!

- 완전히 얻으려면 먼저 놓아야 합니다. 자식을 얻으려면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주먹을 꼭 쥐고 놓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길 때입니다.

가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100. 兵者詭道也 ----- 孫子兵法

전쟁은 속이는 게임이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101. 韜光養晦 ----- 三國志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라!

어둠 속에서 키운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102. 無用之有用 ----- 莊子

쓸모없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것이다!

無用에 긍정의 힘이 보태지면 有用으로 바뀝니다.

103. 美人計 ----- 六韜

미녀를 이용하라!

아름다움도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104. 迂直之計 ----- 孫子兵法

돌아가는 것이 곧장 가는 것보다 빠르리라!

- 세상은 때로는 곤장 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더욱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105. 聲東擊西 ----- 三十六計

소리는 동쪽에서 지르고 서쪽을 공격하라!

- 명분과 자존심 때문에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매한 결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소리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6. 畫虎畫狗 ----- 後漢書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

꿈은 멀리 보고 실천은 앞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07. 七計 ----- 孫子兵法

승리를 위한 7가지 분석

知 彼 知 己, 百 戰 不 殆

백 번 싸워 모두 이기는 것보다
백 번 모두지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108. 君令有所不受 ----- 史記

임금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다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장군감입니다.

109. 假痴不癲 ----- 三十六計

어리석은 척하되 미치지 않는 마라!

難 得 糊 塗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쉽습니다

110. 口是禍門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말로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111. 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①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움.

②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 독장(獨掌)난명.

112. 教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113. 人間百懷 千歲憂

사람은 100세를 살지만 10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114. 金石爲開

"쇠와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와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신서(新書)에서 유래했으며, 현대 경영과 개인 도전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활용됩니다

115. 심상사성(心想事成)

불교 경전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이다.

116. 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도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

117. 螳螂捕蟬

눈앞의 이익(利益)에만 정신(精神)이 팔려 뒤에 닥친 위험(危險)을 깨닫지 못함을 이르는 말. 사마귀가 매미를 덮치려고 엿보는 데에만 정신(精神)이 팔려 참새가 자신(自身)을 엿보고 있음을 몰랐다는 데서 유래(由來)한다. (출전: 후한서)

유래

춘추시대(春秋時代) 말기(末期) 오나라(吳--)의 태자(太子) 우(友)는 젖은 옷을 입고 활을 든 채, 부왕(父王) 부차(夫差)를 만났다. 부차(夫差)가 묻자, 「매미는 사마귀가 엿보고 있음을 모르고 울고 있고, 사마귀는 매미를 덮치려는 데만 정신(精神)이 팔려, 참새가 자신(自身)을 노리는 사실(事實)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새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활 쏘는 데 정신(精神)이 팔려 웅덩이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적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용례)

사기를 당하는 것은, ‘당랑포선’처럼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내 뒤에서 더 큰 돈을 노리는 사기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엿본다는 말로, 눈 앞의 이익에 어두워 뒤에 따를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118. 不爭善勝 -[노자-도덕경],

싸우지 않고 이김이 최선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덕망과 낮추어 최선하는 삶이 진정한 화덕(和德)입니다.

119. 蝸角之爭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싸운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로 승강이하는 짓이나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

120. 牛生馬死

평상시 잔잔한 강이나 호수에 소와 말을 풀어놓으면 둘 다 헤엄쳐 살아 나온다. 하지만 물살이 거셀 때 소와 말이 강에 빠지면 헤엄이 서툰 소는 살아남고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는다고 한다. 말은 거센 물살을 거스르려고 발버둥 치다 힘이 빠져 죽지만 소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며 육지를 밟고 살아난다는 것이다.

살다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말처럼 발버둥 치며 힘을 빼기 보다는 소와 같이 도도한 물살에 몸을 맡기는 지혜도 위기를 넘기는 한 방법일 것이다.

121. 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自己)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強者)에게 함부로 덤빔.

122. 以火救火

불로써 불을 구(求)한다는 뜻으로, 폐해(弊害)를 구(救)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폐해(弊害)를 조장(助長)함을 이르는 말

123. 無中生有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든다)

당나라 안록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켜 옹구성이 포위를 당했다.

이때 성 내에 장순이라는 장수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

화살이 다 떨어지고 성이 함락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장순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천 개의 허수아비에 군복을 입혀 진짜 병사인 것처럼 꾸몄다.

그런 다음 허수아비 천 개를 새끼줄에 엮어 캄캄한 밤중에 성 밖으로 떨어뜨렸다.

이것을 본 적군은 진짜 병사인 줄 알고 수없이 화살을 쏘아댔다.

장순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든 것이다.

장순은 인형에 쏘인 수만 개의 화살을 적에게 내보이며 자신의 계략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 계략은 다음 작전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장순은 이번에는 벗집 인형 대신에 진짜 병사들을 성 밖으로 내려보냈다.

전에 한 번 속은 적군의 병사들은 이번에는 속지 않으려고 한 개의 화살도 쏘지 않았다.

성 밖으로 내려간 병사들은 반란군을 급습하여 크게 무찔러 버렸다.

속임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시킨 후, 다음에 이를 역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허와 실을 교묘히 엇바꾸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찌르는 책략이다.

124. 苦肉計

죽는 것보다 팔 하나 없는 것이 낫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책략)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조조와 주유의 맞대결에서 승패를 가름한 것은 황개(黃蓋)의 전략이었다.

황개는 주유와 사이가 나쁜 것처럼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고는(황개는 조조를 속이기 위해 주유에게 곤장 50대를 맞음) 조조에게 몰래 밀서를 보내 귀순할 의사를 전한 다음 배를 접근시켜 화공(火攻)을 가했다.

이로 인해 조조의 군사는 큰 혼란에 빠졌고,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갔다.

여기서 황개가 조조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책략이 바로 '고육계'이다.

이와 같은 책략은 옛날부터 전쟁 중에 사용된 적이 많았다.

그중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총애하는 신하를 희생시킨 예도 가끔 있을 만큼 승부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다.

125. 對牛彈琴

소를 마주 대하고 거문고를 탄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은 이치(理致)를 말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아무 소용(所用)이 없음을 이르는 말.

126. 邯鄲之步

장자(莊子)의 '추수(秋水)'에, 연(燕)나라의 한 청년이 한단에 가서 걷는 방법을 배우려다가 본래의 걸음걸이까지도 잊어버리고 기어 돌아왔다는 고사에서, 자기의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면 두 가지 다 잃는다는 말.

127. 反客爲主

손님이 도리어 주인(主人) 노릇을 한다.'는 뜻으로, 이른바 주객(主客)이 뒤바

뛰는 것이니, 자신(自身)의 수동적(受動的)인 상황(狀況)을 능동적(能動的)으로 바꾸어서 주도권(主導權)을 장악(掌握)하는 전략(戰略)을 이룸.

128. 尾生之信

우직(愚直)하여 융통성(融通性)이 없이 약속(約束)만을 굳게 지킴을 비유적(比喩的)으로 이르는 말.

중국(中國) 춘추시대(春秋時代)에 미생(尾生)이라는 자(者)가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한 여자(女子)와의 약속(約束)을 지키기 위하여 홍수(洪水)에도 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익사(溺死)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유래(由來)한다. 《사기(史記)》의 <소진전(蘇秦傳)>에 나오는 말이다.

유래

노나라(魯--)에 미생(尾生)이라는 사람은 일단 남과 약속(約束)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성격(性格)의 소유자(所有者)였다. 어느 날, 여자(女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約束)했는데, 여자(女子)는 그 시간에 나타나질 않았다. 「조금 더 조금 더」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소나기가 쏟아져 큰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났다. 그러나 미생(尾生)은 「이 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約束)했으니,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교각(橋脚)을 붙잡고 버텼으나 급류(急流)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장자(莊子)는 도척편(盜跖篇)에서 「이런 자는 책형(기둥에 결박하여 세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刑罰))된 개, 물에 쏘린 돼지, 깨어진 사발을 한 손에 들고 걸식하는 거지와 같으며, 사소한 명목에 끌려 진짜 귀중(貴重)한 목숨을 소홀히 하는 자이며, 참다운 삶의 도리(道理)를 모르는 어리석은 놈이니라.」 하고, 그 어리석음을 규탄(糾彈)하면서 이는 신의에 얽매인데서 오는 비극(悲劇)이라 했다.

129. 儉而不陋 華而不侈 :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다.

• 인재를 고르는 4가지 방법(중국 현자들이 인재를 고르는 방법)

첫째, 남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남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말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절제하는 사람인가?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들게 사는 남을 생각해서 기쁨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두려울 때 얼마나 내색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는가?

두려운 문제가 생겨도 호들갑 떨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의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넷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혼자 슬픔을 삭일 줄 아는가?

나 한 사람이 감정을 삭이면 주변의 많은 사람이 편안해짐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 지식인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성공한 인물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 관심 , 공감, 먼저 다가가기, 진실한 칭찬, 웃음.
- 若烹小鮮(若 :갈을 약, 烹:삶을 펴, 小 :작을 소, 鮮:생선 선)
-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란 뜻, 무위의 리더십, 조용한리더십
- 多言數窮 -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 용의 눈물 - 행복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 不遷怒 - 화를 참기는 쉬워도 남에게 옮기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 暴露僞計 - 버럭쟁이가 되면 천하를 잃는다.
- 浩然之氣 - 현실의 이익만 추구하며 산다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 의로운 삶의 연습과 실천이 필요하다.
- 虛而大物 - 마음을 비우고 소통하라.
- 성공보다 아름다운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 깨달음도 아름답지만 그 깨달음이 남에게 전파되었을 때 더욱 아름답다.
- 天時 不如 人和 - 사람들간의 인화 소통 공감이 중요하다.
-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 먼저 베푸세요!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이 감동할 것입니다.
- 我四拾不動心
- 一般清意味 - 작지만 아름다운 나만이 느끼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 이해 앎가는 일이 생기면 이해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井底之蛙 - 우물속에서 나와 저 넓은 하늘과 바다를 만나야 합니다.
- 事小主義 - 강한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옳습니다.
- 暮氣歸 - 저녁에는 집에 가고 싶다.
- 인생의 의미는 관계속에 있다.
- 隨處作主 入處皆眞-어느 곳이나 곳에 따라 자기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의 모든 것이 진리. 진실의 세계
- 從心所欲 不踰矩

-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삶 - 하이데거 -

고독한 개인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세속적 욕망이 아닌 자기가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것(본래적 삶)을 떠올리게 된다.

- 권력은 스스로 망하지 남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독선 교만 불통으로 망한다.
-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 나이를 먹으면 세 가지 up이 필요하다.

dress up, pay up, shut up

- 의미있는 삶은 한창 고난을 겪는 와중이라도 지극히 행복할 수 있다.
- 번뇌의 근원은 고통이나 슬픔에 있지 않고 진정한 근원은 순간적인 감정을 무의미하게 끝없이 추구하는데 있다.
-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덧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갈망을 멈추는 데 있다.
- 진정한 행복은 부, 명예, 건강, 권력 등 세속적 성취나 내면의 느낌(주관적 감정)에 대한 추구 역시 중단하는 것이다.
-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비 온후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
- 바쁠수록 빈 공간이 필요하다. 인생이 하나의 긴 문장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하다.

- 聖人無常心 -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면 모두를 얻을 수 있다.

- 열심히 산 사람만이 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亢龍有悔 -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亢 높을 항, 龍 용 룡(용), 有 있을 유, 悔 뉘우칠 회)

- 和光同塵 - 나의 잘 남을 숨기고 세속과 함께 하자.

- 千萬買隣 -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료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보배이자 행복입니다.

- 無信不立 - 신뢰가 없으면 존립기반이 없다.

-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 戰勝不復 - 전쟁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거나 자만하다가 실패로 바뀔 수 있다.

- 君子不器 - 군자는 한정된 그릇이 아니다. 진리를 탐하는 군자라면, 갇혀있는 그릇처럼 편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했다.

- 落井下石 -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커녕 도리어 괴롭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落 : 떨어질 낙, 筭 : 함정, 허방다리)

- 勞而無功 - 애만 쓰고 보람이 없음. 힘을 써도 공이 없이 헛수고만 한다. 온갖 애를 썼으나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 '도로무공(徒勞無功)'이라고도 한다.

- 不遷怒 不貳過 -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고 잘못은 두 번 되풀이 하지 마라.

(遷 : 옮길 천, 過 : 지날 과, 실수)

• 有志竟成 -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라는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竟 : 다할 竟 : 끝낼 경)

• 以患爲利 -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뜻

• 나아가고 물러남이 분명하다면 인생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 기존의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생존은 가능할 수 있다.

• 窮卽通 - 전나무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 見危授命 - 위기와 역경앞에 긍정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授 : 주다, 받다)

• 上屋抽梯, 破斧沈舟 - 배수진의 뜻

(屋 : 집 옥, 抽 : 없앨 추, 뽑을 추, 梯 : 사다리 제)

• 涅槃 : 열반 (涅槃)

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경지. 멸도(滅度).

해탈의 경지, 이승의 3 毒 貪, 嗔, 癡가 없는 경지

② 특히 덕이 높은 승려가 죽음. 입적(入寂).

-----• ~에 들다.

涅槃 개흙 열{녘},{앙금흙 날}; 水-총10획; [niè]

개흙, 앙금 흙, 갯바닥.늪 바닥, 진펄 등에 있는 검고 미끈미끈한 흙, 진흙, 반석(盤石), 검은 물을 들일 때 쓰는 광석

槃 쟁반 반; 木-총14획; [pán]

쟁반, 소반, 머뭇거리다, 빙빙 돌다, 즐기다

• 從心所欲不踰矩

좃을 종, 마음 심, 바 소, 하고자 할 욕, 아닐 불, 넘을 유, 곱자 구.

풀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공자가 나이 70에 이르렀다는 경지를 나타낸 말로, 70세를 從心(종심)이라고 함. 출전 論語(논어).

● 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

兵不厭詐(병불염사) 병법에는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아니함, 厭 : 싫어할 염

權謀術數(권모술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술책.

聲東擊西(성동격서) 상대방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

* 36계 [36가지 계책]

제 1 장 승전계(勝戰計) : 아군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었을 때 취하는 작전이다.

1. 만천과해(瞞天過海) : 은밀하게 내일을 도모하라.
2. 위위구조(圍魏救趙) : 정면공격보다 우회하라.
3. 차도살인(借刀殺人) : 직접 나서는 것은 초보자의 방법이다.
4. 이일대로(以逸待勞) :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5. 진화타겁(진火打劫) : 기회가 왔을 때는 별때처럼 공격하라.
6. 성동격서(聲東擊西) :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라.

제 2 장 적적계(敵戰計) : 아군과 적군의 세력이 비슷할 때 기묘한 계략으로 적군을 미혹시켜 승리를 이끄는 작전이다.

7. 무중생유(無中生有) :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라.
8. 암도진창(暗渡陳倉) : 허위 정보를 누설하여 역으로 이용하라.
9. 격안관화(隔岸觀火) : 상대방에 내분이 일어나면 관망하라.
10. 소리장도(笑裏藏刀) : 비장의 무기는 웃음으로 감추어라.

11. 이대도강(李代桃江) : 작은 손실로 결정적인 승리를 유도하라.

12. 순수견양(順手牽羊) : 아무리 작은 이득이라도 묵과하지 말라.

제 3 장 공전계(攻戰計) : 자신을 알고 적을 안 다음 계책을 모의하여 적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13. 타초경사(打草驚蛇) : 상대방의 본심을 드러내도록 하라.

14. 차시환혼(借尸還魂) : 대책없는 모험은 피하라.

15. 조호이산(調虎離山) : 어려운 상대는 끌어내라.

16. 욕금고종(欲擒故縱) :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라.

17. 포전인옥(拋筌引玉) : 작은 미끼로 큰 이득을 도모하라.

18. 금적금왕(擒賊擒王) : 승부는 최후의 일각까지.

제 4 장 혼전계(混戰計) : 적이 혼란한 와중을 틈타 승기를 잡는 전략이다.

19. 부저추신(釜底抽薪) : 힘으로 안되면 상대방의 김을 빼라.

20. 혼수모어(混水摸魚) : 혼란을 일으켜 결정타를 가하라.

21. 금선탈각(金蟬脫殼) : 진영을 그대로 두고 주력을 판곳으로.

22. 관문착적(關門捉賊) : 약한 적을 포위 공격하라.

23. 원교근공(遠交近攻) : 가까운 적부터 상대하라.

24. 가도벌궤(假途伐虢) : 약한 상대는 명분만으로 취할 수 있다.

제 5 장 병전계(倂戰計) : 상황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우군을 배반, 이용하는 전략이다.

25. 투량환주(偷梁換柱) : 고의로 패하게 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한다.

26. 지상매괴(指桑罵槐) : 우회적인 방법으로 겁을 주어라.

27. 가치부전(假痴不癲) : 어리석은 행동으로 상대를 안심시켜라.

28. 상옥추제(上屋抽梯) : 비행기 태워 놓고 미사일 쏘기.

29. 수상개화(樹上開花) : 허장성세. 허풍도 때에 따라서는 큰 힘이 된다.

30. 반객위주(反客爲主) :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

제 6 장 패전계(敗戰計) : 상황이 가장 불리한 경우 열세를 우세로 바꾸어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전략이다.

31. 미인계(美人計) : 미모를 겸비한 여인을 앞세워 현혹시키고 판단 미숙으로 유도.

32. 공성계(空城計) : 철저히 비워 둠으로써 적을 두렵게 하라.

33. 반간계(反間計) : 적의 스파이를 역으로 이용하라.

34. 고육계(苦肉計) : 죽는것 보다 팔 하나 없는 것이 낫다.

35. 연환계(連環計) : 상대방에 족쇄를 채우고 공격하라.

36. 주위상(走爲上) : 여의치 않으면 피하라.

• 인생이란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물러가야 할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 도사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 지금 남보다 빨리 간다고 결코 최후의 승자는 아닙니다.
- 무용에 긍정의 힘이 보태지면 유용으로 바뀝니다.
- 눈 앞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格物致知** -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살펴 그 이치를 터득한다.
- 오직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 어디를 가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 실패란 더욱 큰 결실을 위해 잠시 늦추어진 성공이다.
-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세는 사람이 됩시다.
-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뿐이다. -- 셰익스피어 햄릿
- 하늘에는 별이 있어 아름답고
땅에는 꽃이 있어 아름답고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 YOLO - you only live once

• 삶이 즐거워지는 일곱 가지 습관

1.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라.
 2. 진심만을 말하라.
 3. 똑똑한 척하지 마라.
 4.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하라.
 5. 인내심을 가져라. 페달을 밟지 않고 미끄러져야 할 순간이 있다.
 6. 질투심을 필히 버려라.
 7.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 시냇물이 돌맹이가 없으면 졸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듯이 우리 삶에 고통이나 시련이 없으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 배우는 것은 날로 쌓아가는 것이고
도를 닦는 것은 날로 덜어내는 것이다.
 -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 로버트 풀검
 -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고 삼십에 바로 서고 사십에 불혹하고 오십에 천명을 알고 육십에 귀가 순하고 칠십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 공자
 - 세상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세 가지
 1. 돈 버는 것
 2. 사람 미운 것
 3. 사람 좋아하는 것
 - 작은 위로가 세상을 바꾸진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다.

- 남굴복지 :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착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 불립문자 : 진리를 체득하는데 언어나 문자가 매개가 되는 이론보다 체험적 직관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 화광동진 : 깨달음을 감추고 속세와 하나가 된다 --- 노자의 도덕경
- 진광불휘 : 진짜 빛은 번쩍거리지 않는다.
-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다른 사람 인생의 조연이다.
- 타인을 설득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고스(논리), 에토스(윤리), 파토스(열정)이 필요하다.

• 죽을 때 후회하는 5섯 가지

1.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2.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3.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4.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5. 나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 오랜 기간 입주간병인으로 일한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

• 大賢若愚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 1코린

•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 그것이다. -----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존 스튜어트 밀

• 철학자들은 오로지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

• ”인간의 역사는 남성이 여성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권리를 강탈한 역사다.”

-----엘리자베스 케디 스텐턴

• 苦集滅道

고집멸도 (苦集滅道)

(불) 불교의 근본 교리를 나타내는 말. ‘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고, ‘집’은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의 모임이고, ‘멸’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이고, ‘도’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수행임. 사제(四諦).

苦 쓸 고;

集 모일 집;

滅 멸망할 멸

道 길 도;

•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한다.“
-----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 나쁜 장교가 있을 뿐, 나쁜 사병은 없다 ----- 나폴레옹

•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 스티브 잡스

• 聽 : 임금의 귀로 듣고, 열 개의 눈으로 보고, 일관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허물이라 한다. - 공자 논어

•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

• 大賢若愚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 1코린

• 待人春風 持己秋霜

• “인생은 결국 재능보다 선택으로 좌우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독톡하다’가 자랑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다’가 자랑이 될까요?”

• 笑門萬福來, 一笑一少, 一怒一老

• 권력으로 가는 길은 위선과 사상자들로 포장되어 있다. -----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 揠苗助長 : 곡식의 싹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돕는다'는 뜻으로, '성공을 서두르다 도리어 해

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즉,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揠 뽑을 알; 뽑다, 박힌 것을 뽑아 올리다

苗 모 묘; 모, 옮겨심기 위하여 가꾼 어린 벼, 곡식, 싹

助 도울 조; 돕다, 도움, 구조, 구원, 유익하다

長 길 장; 길다, 길이, 오래도록, 늘이다

• 君舟民水 :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韜光養晦 :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외교방침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성어(成語)로서 도광양회는 청조(淸朝) 말기에 사용되었다. 이후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이 중국의 외교방향을 제시한 소위 '28자 방침'에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韜 : 감추다 光 : 빛 養 : 기르다 晦 : 감추다, 숨기다, 그믐, 밤

• 滿足은 천부적인 富요 奢侈는 인위적인 貧困이다.----- 소크라테스

• 실패란 더욱 큰 결실을 위해 잠시 늦추어진 성공이다.

•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면 요즘의 직업은 두뇌와 연관되어 있다.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련 있을 것이다. --- 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직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 因果應報

• 安貧樂道 :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道)를 즐김..

安 편안할 안;편안하다, 즐기다, 좋아하다, 즐거움에 빠지다

貧 가난할 빈; 가난하다, 가난, 곤궁, 가난한 사람

樂 즐길 낙{락},{풍류 악.좋아할 요}; 즐기다, 풍류, 음악, 좋아하다, 아뢰다, 연주하다, 타다, 악기

道 길 도; 길, 이치, 근원, 기능, 방법, 사상, 인의(仁義), 덕행(德行), 기예, 정령(政令), , 행정(行程), 바둑.장기에서 行馬의 길, 통하다

• 행동하지 않는 자는 역사를 만들 수 없다.

• ”나의 능력은 평범하다.

오로지 실행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 아이작 뉴턴

• ”진리는 복잡하거나 섞여 있는 것들에서가 아니라 단순함에서 발견됐다.“ ----- 아이작 뉴턴

• 이성과 믿음이 서로 충돌할 때는 믿음 쪽을 택하는 편이 낫다. ----- 마하트마 간디

• 無所不爲 : 하지 못할 일이 없음

• 苛斂誅求

苛 가혹할 가 斂 거둘 렴(염) 誅 벨 주求 구할 구

가혹(苛酷)하게 세금(稅金)을 거두거나 백성(百姓)의 재물(財物)을 억지로 빼앗음

• 양자중력은 (모래알 계산:아르키메데스)의 탐구를 이어가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공간의 알갱이를 세고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이지만 유한합니다.

오직 우리의 무지만이 무한할 뿐입니다. -----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 공자

• 사는대로 생각하지 말고 용기내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이 의미 있다.

• 識字憂患 : 아는게 병이다

• 無知而上八字 : 모르는게 약이다

•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 一切唯心造 ----- 華嚴經

• 不立文字

(불) 불도의 깨달음은 문자나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

不 아닌가 부{아닐 불,클 비}; --총4획; [bù]

아닌가, 아니다, 크다, 말라(금지의 뜻), 새 이름

立 설 립{입}; 立-총5획; [lì]

서다, 확고히 서다, 정해지다, 이루어지다, 나타나다, 전해지다, 존재하다, 세우다, 곧

文 글월 문; 文-총4획; [wén]

무늬, 채색, 얼룩

字 글자 자; 子-총6획; [zì]

글자, 아이를 배다, 기르다

• 牽強附會 : 전혀 다른 이론을 자신의 주장에 근거로 쓰기 위해 강제로 부합시키며 옳다고 우김

•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 은퇴후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

1. 같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늘 핑계를 댈다.

2.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 -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나만의 매력(나만의 삶의 역사, 개성, 관심, 자기 계발, 봉사, 흥미등)이 없다.

4. 친구들의 뒷담화를 한다.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하다.

5. 인색하고 잘난척 한다.

•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 불안해지는 까닭은 관중이나 심판, 상대 선수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이다. 생각이 결과(금메달, 승리, 상금)에 먼저 가 있으면 더 흔들린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도록 하는게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되자

-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에서
- 포로들이 곧 풀려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낙관적인 사람보다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돈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를 남겨두십시오.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 예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만, 진리란 자칫하면 매우 위험하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면 자유는커녕 진리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 칭찬받고 싶다면 자화자찬을 하지 마라. - 파스칼

•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 舞文巧詆 : 詆 : 들추어 내다, 꾸짖다.

- 한나라 때 가혹한 관리[酷吏]의 대명사인 장탕(張湯)이 오직 무제의 뜻에 맞춰 법 조문을 줄였다 늘렸다하던 형태를 사마천이 ‘사기(史記)에서 비판했다.

• 騎虎之勢 : 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 내릴 수 없는 형국

• 畫蛇添足 : 뱀을 그리는데 없는 발까지 그려 넣었다는 뜻으로, 쓸데 없는 군일을 하여 도리어 실패함을 이르는 말.

【준말 앞에】사족(蛇足).

•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

•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 강한 사람 - 그것은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 강한 사람 - 그것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 부자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 현자가 되는 일곱 가지 조건 - 탈무드

-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침묵한다.
- 남이 이야기할 때 가로막지 않는다.
- 대답할 때 서두르지 않는다.
- 언제나 핵심을 질문하고 간략하게 대답한다.
-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돌려도 될 일은 최후에 한다.
- 자기가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
- 진실을 받아들인다.

• 만약 친구가 채소를 갖고 있거든 고기를 갖다주어라. - 우정 탈무드

•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밀려 나온다.

• 악마는 인간을 방문하기에 너무 바쁘면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 물고기는 언제나 입 때문에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는데,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즉 남을 헐뜯는 그 사람 자신, 그것을 막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중상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 남이 하는 비방을 옷에 묻은 진흙으로 여겨라.----탈무드

• (성공) = (말을 적게 하라) + (현재의 생활을 즐겨라) +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라인홀트 니부어

• 절망하지 마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 필립 체스터필드

• 인간 사 七情

- 喜(기쁨), 怒(노여움), 哀(슬픔), 懼(두려움), 愛(사랑), 惡(미움), 欲(욕심)

•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 예수

• 知行合一說 ----- 소크라테스

• 정신적 행복, 영적 평화, 덕이 있는 삶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 같은 것이 물질의 소유나 물리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행복보다 더 항구적이고 더 큰 기쁨을 주는 행복이다. 욕망을 한없이 확대하는 데서 오는 행복보다는 욕망을 줄이는 데서 얻는 행복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속적이며 깊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대단한 수행이나 고행을 할 필요도 없다. 약간의 지혜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 貪, 嗔, 痴라는 三毒의 대상인 세간의 사물들은 모두 無常하고 실체성이 없고 괴로움(苦)과 슬픔(哀)의 원천이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덧 없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無慾과 無所有에서 나온다.

•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 없지만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다. ---- 파스칼

• 참된 신앙과 영성은 고통을 없애주기보다는 보다 넓고 깊은 시각에서 사물을 달리 보고 인생을 달리 경험하는 능력을 준다. 고통이 초월의 세계를 열어주는 은총의 매개체로 변한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았는가? 순수한 신앙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닌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의 딸 데레사 수녀처럼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는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도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는 참신앙을 준다.

• 종교에서 기적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기적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실재를 접하게 하는 수단은 될지언정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구원이 아니다. 기적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은 아무런 가시적 징표 없이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을 믿는 신앙이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더 위대하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보이는 징표에 의해 입증된 신앙은 자발적 신앙이 아니고 강요된 신앙이다. 강요된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란 불확실성의 모험을 감수한 자발적 결단이어야 한다.

•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선과 행복이 함께 가지 않는(정비레하지 않는) 부조리한 세계를 보고만 계실까 항변도 한다. 하지만 선과 행복이 정비레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런 세계에서는 자발적 선, 순수한 선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악행을 하면 당장 벌을 받는데 누가 감히 악행을 저지를 것이며, 선하게 살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는데 누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겠는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도덕적 행위, 도덕의 이름에 걸맞은 도덕적 삶은 그 결과의 불확실성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진정한 신앙도 순수한 도덕도 불확실성에서 감행하는 일종의 모험이다.

• 우리가 신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신앙이 설 자리는 없다. 더욱이 신의 문제에서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을 유한한 사물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객관적 지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며, 확실한 지식은 오히려 신앙의 적이다. 진정한 신앙은 지식의 확실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감행하는 자유의 모험과 비약이 있어야 한다는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타당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 속 영상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아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는 확실한 앞을 사후의 희망으로 남겨둔다. 하지만 지금 이 지상에서도 '희미하게 보는' 정도는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신앙이 순전한 암중모색이나 무조건적인 지성의 희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확신'과 '맹신' 사이 중간쯤 어디에 있을 것이다. 확신도 위험하고 맹신도 위험하다. 확신에서 오는 신의 사물화와 독선, 맹신에서 오는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둘이 합칠 때 생기는 '광신'의 피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상의 순례자로 있는 한, 신을 보일 듯 말 듯 의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 참나무가 더 단단한 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나운 바람이다.

•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 사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세계를 초월하는 실재인 하느님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하느님을 유한한 사물로, 절대적 실재를 상대적 존재로 격하시키는 비신앙적 처사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의미도 아닌 유비적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분'이라면 피조물은 '있이 없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인생무상과 죽음을 통한 무와의 대면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이나 주위의 사물들이 덧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존재의 신비와 '은총'에 눈을 뜨게 해준다. 眞空妙有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죽음은 이런 면에서 유한한 존재들에게 감추어진 축복이 될 수도 있다.

• 폴 틸리히같은 현대 신학자는 너무나 진부한 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궁극적 관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궁극적 관심이란 다른 어떤 사물이나 가치에 우선해서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지고의 선을 가리키는 말이며, 동시에 그런 관심과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상태, 곧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다. 틸리히는 좀 더 철학적으로 신을 존재의 근거/근저 혹은 존재 자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이 말은 하나의 상징어가 아니라 거의 문자적으로 취해도 되는 개념이다. 신에 대한 모든 언어가 상징이지만 '존재의 근거'라는 말만은 예외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도 좋다는 것이다.

• 신과 인간의 신비적 합일의 체험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지만, 일단 언어화 되면 또다시 암호가 되고 또다시 누군가의 해독을 기다린다.

•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서서히 걸어야 한다, ----- 셰익스피어

• 예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했던 '죄인들'보다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가 감동적으로 보여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의 세계는 인간의 경직된 도덕주의를 무력화시킨다. 예수는 또 하느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말을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도덕주의

에 대한 경계로 이해한다.

- 불교에서 말하는 '베품 없는 베품'(無住相布施)이야말로 사회정의를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사랑이다. 사회정의를 통한 사랑은 누가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없는 순수한 사랑, 받는 자를 비굴하지 않게 하지 않는 건강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예수 자신도 신학이나 교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율법의 참정신에 따라 사는 삶에 있었다. “누구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그의 말 그대로다.

-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에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칸트는 말하기를 “만약 정의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정의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 즉 지고선이라는 말이다. 정의는 도덕, 정치, 종교가 추구해야만 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정의를 외면하는 정치와 종교는 현대 세계에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런 정치, 그런 종교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 순수하지 못한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말 끝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들먹이지만, 정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부활의 승리에 도취하는 '승리주의' 신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복신앙, 기적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느님나라의 징표이지 하느님나라 자체가 아니며, 종교를 불문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이고 자기의 형제자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 진리 자체 혹은 하느님 자신은 절대적이지만 인간이 진리를 파악하고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은 유한하고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종교 다원주의 입장은 모든 종교 사상과 신앙을 거부하는 세속주의도 아니고 자기 종교만의 진리를 절대화하는 배타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이렇게 진리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반성적인 태도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종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상

생을 넘어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목적이 있는 인생은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은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 오늘, 우리 가치 있는 목적을 세우고 꿈꾸어 보자.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 헬렌 켈러

• 中庸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 ~을 지키다.

庸 쓸 용; 쓰다, 공(功), 써, -로써

•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 린 피터스

• 諸行無常 : 세상 모든 행위와 존재는 늘 변해 고정된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로마는 세 차례나

세계를 정복했다. 처음에는 무력으로, 두 번째는 기독교로, 세 번째는 로마법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 독일 법학자 예링

• 역사는 늘 승자, 강자에 의해 날조되곤 합니다.

• 貞觀政要 - 萬機公論

이세민이가 만조 백관과 만 백성의 뜻을 받아들여 정치하겠다는 말.

為政之要 , 唯在得人 :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데 있다.

•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이긴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

- "적과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일이다.
- "승산이 많으면 이기고, 승산이 적으면 진다."
- "승리는 기세에서 구하고, 병사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지혜를 가둔다.
적을 증오해서는 안된다. 증오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적을 증오하느니 차라리 적을 이용해라.

- 인간은 기쁨보다는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그 유대가 더욱 견고해진다.

- 가치 있는 것을 하는데 늦었다는 건 없단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시간의 제약은 없단다.

-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음의 말을 기억하라. ----- 워렌 버핏

- "인생 최고의 투자는 친구이다."
- "조기 경제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
- "적은 돈을 아껴라. 그래야 큰 돈을 번다."
-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 "책과 신문 속에는 부가 있다."
- "고기를 잡으려면 물에 들어가야 한다."
-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하면 부는 따라온다."
-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對人春風 持己秋霜)"
- "부자들은 끈기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 역사는 합리성과 지혜를 갖춘 강력한 리더들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衆愚政治가 되지 않는다.

- 현대 한국의 지성들

* 그 사람을 가졌는가(함석헌, 1901-1989)

‘먼릿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사랑은 배려(안병욱, 1920 -2013)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낸 만큼 고이게
마련입니다.“

”좋은 머리보다 몽당 연필이 낫다.“

* 행복은 정신적 가치에서(김형석, 1920 -)

”물질적 가치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행복한 느낌을 알게 되었다.
그 나이는 보통 65세에서 75세인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작가가 놀라지 않으면 독자도 놀라지 않는다.“ - 로버트 프로스트

* 최선을 다해 (김동길, 1928-)

”오늘 여기 살아 있지만

내일 이곳을 떠날 우리...
그래서,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리라 마음 먹습니다.“

* 주옹반낭 - 옛 지식인의 양심 (최치원)

신라시대 최치원이 양양의 이상공에게 올린 글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음.

‘酒甕飯囊(술독과 밥통)의 꾸짖음을 피할 길 없고, ‘行尸走肉(걸어 다니는 시체요, 달려가는 고깃덩이)’의 비웃음을 면할 수가 업소.

• 인생의 복과 재앙은 모두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욕심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요, 탐욕과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이다. 마음이 맑으면 불길도 연못이 되고, 마음이 깨닫게 되면 배는 피안에 닿는다.’고 했으니 생각이 달라지면 이처럼 경계는 갑자기 변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새끼줄로도 톱을 삼아 오래 톱질하면 나무를 자르고, 물방울도 오래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찾기를 구해야 한다. 물이 모이면 도랑이 되고, 참외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니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늘에 맡겨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편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마음을 열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바람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항해하는 선장은 결코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다. ----- 헨리 조지

•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적당히 취하도록 마셔야 그 속에 멋진 흥취가 있다. 만약 꽃이 활짝 피고 술에 흠뻑 취하는 데 이르면 도리어 추해져 재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 절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건 한 푼을 덜어내면 곧 한 푼을 벗어나게 된다. 만약 사귀를 줄이면 줄인 만큼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그만큼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덜면 곧 그만큼의 본성을 지킬 수 있다. 사람이 날마다 더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더함을 구함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얹어매는 것이다.

• 오늘을 즐겨라. 오늘은 기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이 오늘의 하루를 탄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을 즐기십시오.

• 결혼을 통해서 행복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함께 행복을 향한 끝없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두려움의 종류가 위험의 종류보다 더 많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게 고통받는다. ----- 세네카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이 살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살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같이 살라.”

• 우리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 작지만 빈번한 성공에 인생을 바꾸는 위력이 있다.

•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 위험은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단지 진정한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 들어서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승패의 올라미에서 벗어나고 고락의 순환을 뛰어넘어 평정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다. 그저 문제를 더 오랫동안 연구할 뿐이다.

----- 앨버트 아인슈타인

• 종교란 대중에게는 진실이고, 현자에게는 거짓이며, 지배자에게는 유용한 수단이다.

•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 헬렌케어

• 패배보다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 루스벨트

•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 벤저민 프랭클린

•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 공자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폴 부르제

•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 영국 격언

• ”상처 입은 굴이 진주를 만든다.“ ----- 랠프 왈도 에머슨

• 가장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변화할 수 있는 자야말로 유일하게 살아남는 자다. ----- 찰스 다윈

• 인생에서 실패란 아예 없다. 실패는 성공의 길로 이끄는 과정일 뿐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안도현

• 易地思之， 我是他非

• 露積成海：이슬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바꾸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바뀌지 않고 다가온다면 그것을 끌어안아 보십시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그렇게 내가 활짝 웃어주면 세상도 활짝 웃어줄 것입니다.

- 시간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영원에 대한 허무한 환상을 만들게 한다.
-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 모든 종교와 과학 철학은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에서 탄생한 것이다.
- 인간은 대칭형 엄지손가락 덕분에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 새가 날아오도록 하려면 나무를 심어라.
-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
-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우주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특별하다.
- 우리의 우주를 넘어 무한한 공간 저편 어딘가에 영원한 생명과 사고가 존재한다는 생각만으로 위안을 삼는 수밖에 없다.
- 우리는 영원을 상상할 수 있고 영원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직접 만질 수는 없다.
- 진정한 발견은 낯선 지명을 찾아갈 때가 아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
-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보고 싶다면 예술작품을 보라.
-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을 갈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영원함이란 예술을 통한 영원함 뿐이다.
- 인생은 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바운드가 중요하다.
- 우주의 불확실성은 고전역학, 양자역학 모두에 내재되어 있다. 신은 자연에 법칙을 주었지만 어떤 일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심이 천심)
- 죽음은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다.
- 死後生の 5가지 증거
 1. 사후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다.
 2. 사후세계를 경험한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
 3. 저명한 의사들의 연구결과 증언
 4. 역행최면법을 통한 사례분석
 5. 근사체험
- 사후생이 없다면 지금의 삶은 의미가 없다.
- 육체가 고장난다고, 뇌가 죽는다고 영혼,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無財七施

어떤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답니다.
"저는 하는일 마다 제대로 되는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 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빈 털털이 입니다.
""남에게 줄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일곱가지는 있느니라."

화안시(和顔施) :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언시(言施) :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고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심시(心施) :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안시(眼施) : 호의를 담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것 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요.

신시(身施) :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돕은 일이요.

좌시(座施) : 자리를 내주어 양보 하는 것이요.

찰시(察施) :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 주는 것이다.

네가 이 일곱 가지를 진실하게 행하면 하는 일이 순조로와 지리라.
무재칠시가 보시의 본래 원리입니다.
무재칠시를 할때에 진실하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재칠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유한이가 무재칠시를 실천한다 하면서
물질을 보시하지 못한다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이가 재보시 하면서 무재칠시를 모른다면
그것은 복을 지을 지연정 공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본래 불교는 마음법인 것입니다.

